

# 다니엘기도회뉴스



오늘의 강사  
이종락 목사

## 하나님의 은혜

- 고린도전서 15:10 -

- 고려개혁신학원 목회학 석사
- 국내 최초 베이비박스 설치·운영
- 현) 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내일 간증의 밤



## 다니엘기도회 이벤트



**다니엘기도회 인증샷! 포토제닉**  
다니엘기도회 참석을 알 수 있는 인증샷을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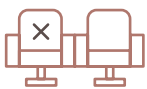
**다니엘기도회 간증**  
다니엘기도회 기간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원고를 받습니다.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grace@oryun.org  
(이름, 소속,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 다니엘기도회 에티켓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



1 자리 잡아주지 않기



2 가운데 앞좌석 부터 앉기



3 음식을 반입 하지 않기



4 휴대전화 전원은 꺼놓기



5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기



6 안내위원에게 협조하기



7 대중교통 이용하기

Daniel Prayer Etiquette

## 2017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 <주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 <일시>

11.1(수)~11.21(화)  
오후 8:00~10:00

### <장소>

#### 영아부

지하 1층 영아부실

#### 유아·유치부

제1교육관 지하 1층 사무엘홀

#### 저학년(1~3학년)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 고학년(4~6학년)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But(그러나)’이라는 단어는 매우 힘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어떠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But’ 보다 더 능력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텃줄에 이상이 생겨 죽을뻔한 고비를 겨우 넘겼고, 어렸을 때는 희귀한 벌레에 물려 또 한번 생명이 위태로웠으며, 8살 때는 자동차에 치여 날아가는 큰 교통사고까지 겪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던 저의 인생을,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저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위해 인내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 버지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잘 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좋으신 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매일 아침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하였던 새벽기도의 능력으로 저는 불과 6개월 만에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생님을 통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교육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미국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던 중, 부모님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온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부모님 때문에 저희 가정은 항상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에 걸쳐 통학을 하던 저는 용돈을 벌기 위해 방과 후 늦게까지 과외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싫어 매일 짜증을 내고 불평을 늘어놓던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여주실 거야.’ (One of these days, God will show us.)”

하나님께서 제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사랑하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주일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연단의 시간들은 후에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처음 상담자라는 직업에 지원했을 때, 그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끈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야고보서 1:4)’는 사실을.

음주운전 중이던 트럭과의 충돌로, 살아난 것이 기적 일 만큼의 큰 사고를 겪었을 때에도 저는 이미 당연히 죽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기에서 건져내셨고, 요셉의 삶처럼 굴곡이 많았던 제 삶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저의 유년시절과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 그리고 힘들었던 연단의 시간들까지.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였습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버드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20대 때부터 준비해도 될 일들을 13살 때부터 훈련하게 하였고, 기도의 용사셨던 부모님을 통하여 물질적 후원 대신 하늘계좌에 수많은 기도들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굴곡이 많았음에도 그의 믿음이 꾸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결과만 바라며, 그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우리가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 “다시 말씀 전할 그 날을... 뇌 병변 1급 장애 김한수 목사”

5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쓰러진 후 뇌 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파주 기뻐하는 교회 김한수 목사(54).

누군가의 도움 없인 꿈쩍도 할 수 없는 남편을 위해 아내 남혜경 사모(51)는 5년째 그의 손과 발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본인 나이가 몇 살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남혜경 사모..

목사안수를 받을 때 감격의 눈물을 펴펴 흘릴 만큼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에 감사했던 남편이었기에, 그 안타까움이 더 크게 자리합니다. 병상생활이 길어지면서 나날이 불어나는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가장 큰 힘겨움은 김한수 목사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점점 흠어져 버리는 성도들... 김한수 목사가 시무하던 파주 기뻐하는 교회는 남혜경 사모가 대신 주일예배를 인도하며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 김한수 목사가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목사

### 사랑의헌금 참여방법

이번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선교사, 농어촌 및 미자립 목회자, 외국인 등 수술과 치료, 긴급한 도움으로 160여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사랑의헌금 봉투  
매일 예배 시에 헌금합니다

02



ARS 전화 후원  
1877-0110  
(휴대폰 소액결제)

03



온라인 헌금  
585-000711-01-069  
(기업은행) 오륜교회

04



스마트폰 헌금  
오륜교회 홈페이지(oryun.org)  
및 QR코드 참여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010년도에 결혼하면서 한국에 왔을 때부터 알고는 있던 다니엘기도회에 일본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참석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일본어 번역 봉사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봉사를 안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주어진 날부터 시작한 나의 다니엘기도회. 그 직후에 오륜교회 중보기도학교를 참석하면서 주님과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진지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저는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는 걸 목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매일 밤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제목밖에 없었던 저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올해 길었던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한 시간 이상 잊지 않고 기도하였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기도회를 위해, 한반도와 일본의 완전한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기도회를 위한 번역을 할 때마다 제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에 감사가 넘쳤고, 당장이라도 주님께 달려가서 엎드려 예배 드리고 싶은 기쁜 마음이 넘쳤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통역팀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도전 받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앉으시는 본당에서 통역팀과 섬기는 분들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 또한 어린이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일년동안 다니엘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기도회를 나의 기도회로 준비하며 달려온 시간이 두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기도회 내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자리로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이 깊었던 간증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간증이 기도하는 북한 성도님들의 스토리였습니다. 간증을 들으며 한국과 일본의 피가 같이 흐르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감정마찰을 보게 해주셨고, 그 문제 모두가 저의 죄악 때문이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핍박 받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0.0001밀리정도 밖에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둘러싸인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한반도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일본 교회에는 한국과 같은 기도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니엘기도회 방송을 통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한국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 일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별로 상관없이 없었던 한국에서 제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복음의 은혜 앞에, 저는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모시고, 섬기며,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 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 크신 사랑의 팔을 크게 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이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며, 내년 다니엘기도회를 벌써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다니엘기도회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야마우치나나에 | 성내2교구

**P 주차 안내**

- 주차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셔틀버스는 금요기도회 때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 교회 종직자들은 교회 외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고 운동장 주차차량은 꼭! 당일 출차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1 옥외주차장 2**

**보성고등학교 주차장 3**

